

석유위기 10년 주기설



심 의 섭

명지대 교수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우리 나라에서는
“석유위기란 국내외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야기된 국가적 석유수급
차질상황으로서
평시대비 7% 이상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석 유위기, 석유파동, 오일쇼크라는 말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귀에 익은말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석유위기란 국내외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야기된 국가적 석유수급 차질상황으로서 평시대비 7%이상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위기의 발생요인은 국외적으로는 산유국의 문제(전쟁, 분쟁, 유전사고, 재해 등), 수송상의 문제(수송경로 폐쇄, 유조선 침몰, 항만 시설의 기능마비, 재해 등), 정책상의 문제(OPEC 감산정책, 생산쿼터 감축, 금수조치 등)와 석유회사 도산, 항만 파업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유사의 문제(화재, 정유시설 파괴 등)와 수송상의 문제(유조선 침몰, 항만시설 기능 마비, 송유관로 파괴, 재해 등)로 나눌 수 있다.

제1차 석유위기(1973~74)는 1973년 10월 6일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아랍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 하여 감산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에 대해 석유금수조치를 단행하자 서방세계는 석유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아랍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OPEC이 원유생산을 무려 25%나 감산하자 원유가는 무서운 속도로 인상되었다. 74년 하반기를 고비로 원유가가 안정을 찾기는 했으나 73년초 배럴당 2달러 59센트였던 중동산 기준원유 값은 1년 만에 11달러 65센트로 무려 4배 가까이 올랐다.

제2차 석유위기(1978~79)는 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촉발됐다. 78년 10월 부터 가열된 이란의 정치소요는 점차 전국적 유혈폭동사태로 발전하면서 그해 12월 27일 이란은 전면적인 대외석유금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석유공급의 15%를 점하고 있던 이란은 석유의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석유업자들의 매점매석과 투기적 시장조작까지 가세하면서 국제 석유시장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다.

79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성수기를 앞둔 수요 증가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등 정치문제까지 겹쳐 이 해 말에는 현물가가 공식판매가의 배가 넘는 41달러 선을 돌파했다(1980.11). 또 80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는 기준원유가도 30달러 대를 돌파했으며 81년 10월 34달러 선에서 단일화됐다. 78년의 12달러 70센트에서 무려 168% 오른 것이다.

이러한 두 차례의 석유위기는 모두 중동정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른 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유가인상의 경과이다. 제1차 석유위기는 6개월에 못 미쳤던 파동기간이 제2차 석유위기 때는 무려 2년 이상 긴장이 계속되었다. 약 3개월에 걸쳐 두 차례의 인상으로 유가를 4배나 폭등시킨 제1차 위기와는 달리 제2차 위기에서는 장기간 9차례에 걸쳐 조심스럽게 유가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1차의 경우에는 유가인상으로 산유국 뿐 만 아니라 메이저에게도 이익이 되어 양자간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짧았던 것이고, 2차 위기 때는 산유국이 석유자원의 국유화조치로 메이저의 공동이해관계가 없어져 판매조직 등 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산유국이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나타났다.

둘째, 현물시장의 확대이다. 종전까지는 세계석유거래에 있어서 주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간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던 현물시장이 제2차 위기를 계기로 그 기능이 석유업자들의 매점·투기수단으로 확대되고 공시가격의 선행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셋째, 석유비축의 확대이다. 1979년 말 현물가격의 급등현상은 선진국과 석유회사들의 경쟁적인 원유매입과 석유비축 확대에서 비롯되었다. 정상적인 추세로는 겨울철인 1/4분기와 4/4분기에 재고를 방출하고 여름철에 비축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1979년 4/4분기 중에는 재고방출 대신에 다량의 재고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세계의 1차 재고수준이 7억배럴 정도 증대되었다.

1, 2차 석유위기가 모두 중동정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점은 유가인상의 경과, 현물시장의 확대, 석유비축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1, 2차 위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석유파동이 있었다. 제2차 파동 이후 사우디 등 산유국간의 시장 쟁탈전에서 비롯된 유가폭락기(86.7; 9.6달러)를 거쳐 이란-이라크 전쟁기간의 석유수급불안에서 비롯된 석유위기(90.11; 38달러)가 있었다. 96년도에도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급등기(96. 12; 24.07달러), 98년도에는 공급과잉과 아시아 등의 수요부진 및 OPEC의 장악력 감소에 따른 유가 폭락기(98.12; 9.15달러)가 이어졌다. 그후 산유국의 감산실시 및 동절기 수요급증에 따른 99년말 급등기(99. 11.29; 26.23달러)부터 시작하여 2000년 초에 산유국 감산, 재고부족, 재급등(2000. 3.7; 32.91달러)에 이어 최근에는 OPEC 추가증산정책,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의 이유로 90년 이후 최고 기록인 34.38달러에까지(2000.9.12) 이르렀다.

유가위기는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특히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통화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어서 석유수요가 많아지고, 또 유럽 등 북반구에서 겨울 난방용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시각 이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미국과 EU 등은 고유가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OPEC에 대폭 증산하도록 압력행사하고 있으며, EU 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부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OPEC은 EU와 선진권에 대해 높은 유류세, 가수요 형성, 재고관리 실패 등을 지적하면서 소비국 책임도 크다고 주장한다. OPEC 내부에서는 사우디 등 온건파에서는 잉여시설이 있으므로 증산에 이익이 되므로 대폭 증산을 주장하고 베네수엘라, 이란 등은 강경파는 잉여시설이 없어 증산이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조금만 증산하자는 등 공방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은 관망중이다.

최근의 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 2차 석유위기 때와는 다르다. 국제유가 상승은 그 속도나 이에 따른 충격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 1, 2차 석유파동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2차 석유파동과 다른 점은 ① 1차 석유위기 때에는 1개월만에 국제유가가 약 3.9배로 올랐고 2차 석유위기 때는 6개월만에 2.3배

이번 유가위기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
동아시아 석유수요 증가,
유럽 등 북반구 난방용
수요 급증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 올랐지만 최근에는 1년 6개월에 걸쳐 약 2.5배가 올라 유가 상승기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② 1, 2차 석유위기 당시에는 국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됐으나 최근에는 실물 지표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수출도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③ 대외거래도 1, 2차 석유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10% 수준에 달하고, 총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도 20%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900억 달러로 총외채대비 64%나 돼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흡수 능력이 높은 편이다. ④ 1, 2차 석유위기 때 30%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올해는 아직 3% 내외에 머물고 있고, 경제구조 면에서도 개방화 진전과 유통구조 개선, 업체간 경쟁심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줄여서 말한다면 지난 석유과동 때와는 달리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됐지만 최근에는 호조를 지속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다르고, 대내적으로도 경제 운용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유가와 석유위기설과 같은 불안 심리에 당황하지 말고 끊임없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제고와 같은 기본적인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 및 이용체계의 기초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운영의 성숙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아직 제3차 석유위기라고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고유가 시대를 제3차 석유위기라고 할 수 있다면 석유위기가 1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는 10년 주기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제1차위기(1973~1974)와 제2차 위기(1978~1979)에 이어 걸프전 석유위기(1990), 그리고 1999년 말부터 시작된 최근의 위기에서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석유위기가 대충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 같은 旬年末을 전후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최근의 석유위기를 제3차 위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차 위기가 제4차 중동전, 2차가 이란-이라크 전쟁, 그리고 걸프전시 위기가 이라크-쿠웨이트간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작금의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위협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대결과 전운은 현재의 석유위기가 감산위기가 될는지, 또는 제3차 석유위기로 명명될 수 있는 고리나 계기가 되어 10년 주기설을 뒷받침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

고유가와 석유위기설 등의 불안심리에 당황하지 말고 끊임없는 에너지 절약 및 개발, 에너지 효율성제고와 같은 기본적인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 및 이용체계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운영의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